

사회

고달픈 광주 경찰들

가상훈련 월2회→매일 2회 불만 실제 상황 터지면 제때 대응 못해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각 경찰서 가상훈련을 대폭 늘리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기존에 매일 두 차례씩 실시하던 강력범죄 발생 대비 가상훈련을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두 차례씩 하도록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가상훈련은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가상해 진행되는 것이다. 각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가상훈련이 진행되면 실제인지 가상인지 모른 채 사건이 발생한 현

장에 출동하거나 용의자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하게 된다. 광주경찰청 측은 주요 강력범죄 예방 및 최적의 치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훈련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훈련이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되면서 경찰관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의전화와 잇따르는 등 훈련 횟수 증가로 인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도 벌어

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관들이 가상훈련으로 착각한 나머지 제때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경찰서 파출소 A경찰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매일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는 가상훈련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미칠 지경”이라며 “맞은 훈련 탓에 긴장감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면서 “차후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훈련 횟수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기 기자 kimho@kwangju.co.kr

초과 근무수당 제한 내부규정 마련 120~140시간 넘으면 일일이 소명

경찰청이 광주경찰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실태 조사 이후 광주지역 각 경찰서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지역 각 경찰서에 따르면 각 경찰서는 지난달 초·중순께 10명으로 구성된 초과근무관리위원회(위원장 경무과장)를 만든 뒤 형사과·각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안에는 형사과 120시간~140시간, 지구대 60시간~80

시간에 한해 소명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경찰서 경무과장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부당수령 근절 차원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본인 소명을 한 뒤 지급받으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을 넘으면 해당 소속 팀장·과장·경무과장에게 본인 소명을 해야 함은 물론 감찰부서에 통보되는데, “이

것이 시간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맞섰다. 초과근무수당 실태 조사 이전에는 해당 소속 팀장의 결재만 받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특히 각 경찰서별로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형사과·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게 휴일(비번) 댄 집에서 무조건 쉬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주간 10시간·야간 14시간씩 근무하는데, 자신이 비번일 때 일하지 않고 쉬게 되면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 한 경무과장은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12차례 미성년 성폭행 30대 징역 11년 선고

연쇄 차량털이 용의자 공개수배

광주남부경찰

광주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연쇄 차량털이 사건(광주일보 6월 1일 6면)의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수배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남구와 서구 일대에서 총 20대의 차량을 탄 30~40대 남성 2명(사진)을 공개수배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모두 170cm 가량의 키에 각각 검은색 후드 점퍼와 회색 바지, 노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용의자들의 신원이나 소재를 아는 시민은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062-612-8175)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최근 익산과 광주에서는 모



두 50대 가량의 차량이 동일한 수법으로 털려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김홍기 기자 kimho@kwangju.co.kr

미성년자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재운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모(30·무직)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소아 성기호중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안씨는 지난 2006년 1월에 전주시 내 한 길가에서 A(11)양에게 “이삿짐을 들어달라”며 접근해 흥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광주기자 knews@



1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클럽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열린 '범죄예방 골든벨 결선대회'에 참가한 중학생 70명이 문제를 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혹시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전남경찰, 화순서 학생 범죄예방 골든벨 대회

1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클럽에서 전남경찰청이 주최한 ‘범국민 준법익식 확산을 위한 범죄예방 골든벨 결선대회’가 열렸다. 지역 예선을 거쳐 진출한 중학생 결선참가자 70명이 33문항의 문제를 풀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범죄예방 골든벨은 지난 3월부터 전남청은 22개 시·도를 돌아가

며,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승은 마지막 문제를 풀고 골든벨을 울린 김시연(14·보성 학교 여중 2년)양이 차지했다. 골든벨 문제는 ‘혹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어른들께 알리고 빨리 몸을 씻어야 한다(정답

X)’,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자유 패션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정답 X)’ 등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학생들이 입장에서선 선택 풀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 결선에 참가한 김재민(14·해남 산이중 2년)양은 “골든벨을 통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배워 유익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박승희 여성청소년계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양승현 기자 yang@kwangju.co.kr

배심원 무죄평결 피고인에 유죄

광주지법, 농약 타 남편 살해혐의 아내 징역 2년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일 농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여·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죽을 생각으로 농

약을 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물병에서 채취된 지문이 감정 불능 처리됐다고 해서 김씨의 지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실 등으로 미뤄 김씨가 물에 농약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으로 부터 잦은 폭행을 당한 점과 김·경에 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남편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남편이 자신을 감전시킬 목적으로 문고리에 전선줄을 연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김씨의 주장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신안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평소 물을 담아 마시던 페트병에 농약을 몰라 함께 섞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얼빠진 광양 항만물류高

교사 실수 점수 안돼 모의평가 대상 빠져

본보 취재 시작에 부랴부랴 시험지 구해

전남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학교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지 못할 뻔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1일 광양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10여명은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를 치를 수 없을 뻔 했다. 평가업무 담당교사가 지난 4월 평가원의 전산시스템에 응시생 수 등 수험정보를 입력했으나,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교사대상 학교에서 제외된 것. 담당교사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교감이나 교장 역시 모의고사 신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기 기자 kimho@kwangju.co.kr

학교 측은 학교에 시험지가 도착하지 않자 사실확인인 나서 뒤늦게 경위를 파악했지만 시험 전날인 1일 오후 4시까지 결국 시험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험을 포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응시 불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광주일보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전남도교육청을 통해 평가원에 협조를 구해 이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험지를 수령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로 출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산 입력에 서툰 교사의 업무적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기 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27) 김중두



방조제 공사 비리 의혹 신안군청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방조제 건설 공사비리 의혹과 관련, 신안군청과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안군 건설방제과·세무회계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및 건설 공사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목포·무안·인천시 강화군 등 3개 지역 6개 건설업체와 이 중 한 업체와 관련이 있는 목포시 A의원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몰지마’ 선방 방화 50대 검거

목포해양경찰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목포시 죽곡동 북항에 정박한 선방(액인선)에 불을 질렀으며 갑판 등이 불에 타 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 기자 dss6116@

“광주~나주 2만원에 가자”에 격분

○“장거리 택시 요금 흥정을 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택시기가 경찰서행.”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문모(59)씨는 이날 새벽 3시 55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이모(27)씨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나주까지 2만원에 가자”라고 요구한 이씨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경찰에서 문씨는 “광주에서 나주까지 왕복 4~5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이씨가) ‘승차거부’라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 /양승현 기자 yang@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